

현지정 문화재(유형/조각)

1966년 2월 22일 지정

관리자 후지와라도

목조관세음보살입상

당내에 안치되어 있는 목조관세음보살입상은 구 후지와라신덴의 관음당(후지와라도) 본존입니다. 상 높이는 83cm, 두부와 체간부를 나무 하나로 만들고, 양 어깨에서 앞부분과 양다리, 천의는 별도 목재로 만들었으나, 제작 연대는 자세한 조사 결과, 에도시대 전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에도시대 전기에 성립한 후지와라신덴에 교토쿠의 다나카 산자에몬이 중심이 되어 당을 짓고, 겐로쿠 3(1690)년에 교토쿠의 도쿠간지 절에서 관세음보살상(관음상)을 간청하여 안치한 것이 기원이라고 합니다.

옛부터 '미가와리 관세음'이라 불리며, 여러 설은 있으나, 단바노쿠니 아나오지 절(교토부 가메오카시)의 미가와리 관세음과 동일 목재 동일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단바노쿠니 겐주지 절에 있던 것을 초빙했다고 하는 유래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미가와리 관세음 유래'에 따르면, 당시 교토에서 유명한 불공이었던 간제는 단바노쿠니의 장군 의뢰로 관세음보살상을 제작했습니다. 간제가 이 상을 장군에게 넘겨준 뒤, 단바노쿠니 오에산 주변에서 도적에게 습격을 당해 칼에 베였으나 상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간제가 단바노쿠니의 장군에게 돌아와 보니, 관음상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 간제를 대신해서 희생당한 것을 알고, 돈독한 신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지와라도에서는 당초부터 비불로 여겨, 관세음보살은 33 가지로 모습을 바꾸어 중생(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구한다는 데서 유래하여 33년에 한 번 개방하고 있습니다.